

# 壬亂期 順天 朴氏 三代 倡義 研究

李 錫 麟\*

---

I. 머리말	IV. 朴東命·朴弘遠의 活動
II. 朴春茂의 倡義背景	1. 朴東命의 生涯와 活動
III. 朴春茂의 義兵活動	2. 朴弘遠의 生涯와 活動
1. 淸州城 奪還에서의 役割	V. 맺음말
2. 鎭川 勝捷 이후의 활동	

---

## I. 머리말

朝鮮王朝 최대의 대외적 시련이었던 壬辰倭亂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동인의 하나는 전국적인 義兵活動에 힘입은 것이었음은 잘 아는 바와 같다. 당시 전국적인 의병의 봉기야말로 제대로 교전 한 번 벌이지 못하고 전쟁이 발발한 지, 채 한 달도 못되어 首都까지 내주고 말았던 官軍의 일방적 패배를 반전시켜 승리의 토대를 닦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특히 일찍부터 경상도 의병이 활약하여 湖南地方이 보전됨으로써 병참조달 및 수군활동의 背後基地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임진왜란 연구에서 의병에 대한 관심이 활발히 전개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임진왜란 의병활동에 대한 연구는 몇몇 주요 義兵將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된 측면이 없지 않다. 또 그 軍事的 役割과 成果보다는 國難克服의 精神史的 意味를 강조하는 경향으로 흐른 측면도 적지 않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국가 또는 사회적 위기에 직면하여 個人의 安危를 돌보지 않고 목숨을 희생하는 滅私奉公의 英雄意識을 추출하는 데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壬辰戰亂의 전반적 측면에서 군사적 의미파악이라든가 義兵陣營 자체의

---

\*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작전·운영문제 등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하는 결과를 낳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後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때 임진왜란을 끝내는 朝鮮軍의 승리로 이해하는 시각이 일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sup>1)</sup>은 적절하다고 하겠다.

각지에서 활동한 의병장들의 위치와 의미를 壬辰戰亂 전반의 추이와 관련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임진전란의 전반적 과정에 대한 파악이 군사적 측면에서 계기적이고 세분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각각의 義兵陣이 倡義起兵하여 戰鬥을 수행하기까지 전반적 과정에 대한 상세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규모 의병진의 경우 그 휘하의 群小義兵將들에 대한 개별적인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독자적인 활동을 보였던 의병장들에 대한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sup>2)</sup>

본고는 後者의 측면에서 임진왜란 당시 忠淸道 淸州地域에서 起兵하였던<sup>3)</sup> 의병장의 한 사람인 花遷堂 朴春茂와 그의 아들 梅隱堂 朴東命 그리고 朴東命의 아들 宣務郎 朴弘遠 등 3대에 걸친 倡義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朴春茂의 창세기병에 대해서는 임진왜란에 대한 대표적 기록물인 『懲毖錄』·『瓊尾錄』·『亂中雜錄』 등에 그 사실이 소개되었다.<sup>4)</sup> 특히, 『瓊尾錄』 및 『亂中雜錄』의 全羅道 義兵從事官 宋齊民(1549~1602)<sup>5)</sup> 檄文<sup>6)</sup>에서는 그가 錦山戰鬪의

- 1) 임진왜란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주목된다.
  - ① 許善道, 1984. 「壬辰倭亂論」 『第14回 東洋學學術會議講演鈔』(檀國大 東洋學研究所).
  - ② 許善道, 1985. 「壬辰倭亂論」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論叢』(正音文化社).
  - ③ 許善道, 1987. 「壬亂劈頭 東萊(釜山)에서의 여러 殉節과 그 崇揚事業에 대하여(上)」 『韓國學論叢』(國民大 韓國學研究所).
  - ④ 崔永禧, 1991. 「壬辰倭亂의 再照明」 『國史館論叢』30(國史編纂委員會).
  - ⑤ 許善道, 1992. 「壬辰倭亂史論」 『韓國史論』22(國史編纂委員會).
- 2) 崔永禧, 1992. 「壬辰倭亂에 대한 理解의 問題點」 『韓國史論』22(國史編纂委員會)에서도 앞으로의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基礎作業에 집중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3) 임진왜란 때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의병활동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의 논저가 참고된다.
  - ① 崔權默, 1970. 「壬亂 때의 湖西義兵에 대하여」 『論文集』9(충남대학교).
  - ② 金鎮鳳, 1982. 「壬辰亂中 湖西地方의 義兵活動과 地方士民의 動態에 관한 研究」 『史學研究』34(韓國史學會).
  - ③ 李錫麟, 1993. 『壬亂義兵將 趙憲研究』(新丘文化社).
- 4) ① 『懲毖錄』 권1, “時各道起義兵討賊者甚衆…其在忠淸道者 僧人靈圭…士人朴春茂…”  
 ② 『亂中雜錄』第1(『大東野乘』 권26), 壬辰年 7月, “忠淸道 前察訪朴春茂 舉義兵討賊.”  
 한편, 박춘무는 宣武勳과 관련해서는 原從2等功臣에 책록되었다. 그런데 「宣武原從功臣錄券」(서울대 奎章閣 도서번호 : 古4251-13)에서 朴春茂라는 이름의 녹훈자는 僉知職과 部將職을 가진 2명이 등재되어 있다. 이 중에서 화천당 박춘무는 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주)11, 참조)을 지냈다고 하므로, 첨지직의 녹훈자로 판단된다.
  - 5) 호는 海狂, 자는 以仁 또는 士役, 본관은 洪州이며, 初名은 濟民이다. 全羅道 潭陽에서 태어났으

殉節名賢인 重峰 趙憲(1544~1592)과 더불어 각각 忠淸義兵의 左·右大將으로 추대되었다고 하는 주목할 만한 사실<sup>7)</sup>을 기록해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이 斷片的인 紹介에 그친 것이어서, 지금까지 그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병장에 대한 개별사례연구가 그러하듯이 일차적으로 자료의 부족이라는 문제가 하나의 고민거리이다. 박춘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문집으로 『花遷堂集』<sup>8)</sup>이 편찬되기는 하였지만, 300여 년이나 지난 후대에 관련자료를 수집한 것이어서 기본적인 生沒年代조차 밝히지 못하였다.<sup>9)</sup> 또한 朴東命과 朴弘遠에 관한 자료 역시 빈약할 수밖에 없었다.<sup>10)</sup> 따라

며, 光州·務安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임진왜란 때에는 羅州에서 창의하여 金千鎰의 휘하에서 종사관으로 활약하였다. 土亭 李之涵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30세이던 1578년 스승을 좇아 湖西로 가서 조헌·박춘무와 교제하면서 歲寒契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문집으로 『海狂集』(奎章閣 도서번호 : 奎6668 ; 2권1책, 1783년, 5대손 宋益中이 편집·간행)이 전해온다. 문집의 서문은 金鍾秀가 썼다. 주요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上卷에서는 「召募湖南義兵文」 등 1차자료를 실고 있으며, 下卷에서는 遺事·墓地銘을 비롯하여 尤庵 宋時烈이 쓴 墓表, 南溪 朴世采가 쓴 傳記 등 후대에 서술된 관련자료를 실었다. 그는 임진왜란 때 首倡하였던 조헌·김천일·高敬命 등 兩湖地域의 주요 의병장들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면서도, 충분히 조명받지 못한 인물 중의 하나이다.

- 6) 『瑣尾錄』 및 『亂中雜錄』에 실려 있는 송제민의 격문은 『瑣尾錄』의 것이 보다 온전한데, 이것도 그 全文이 완전히 실려 있지는 못하다. 그런데 필자는 본고의 작성과정에서 송제민의 문집인 『海狂集』을 직접 열람함으로써, 그 전문은 물론 명칭이 「召募湖南義兵文」임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後述하는 과정에서는 이 「召募湖南義兵文」으로 인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자료는 趙浚來, 1983, 『壬亂義兵將 金千鎰研究』, p.48, 學文社에서 이미 활용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논저에서는 『瑣尾錄』 등과 연관관계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자료에 대한 해제없이 단순히 한 차례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즉 『海狂集』의 자료적 가치에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던 듯하다.
- 7) 『瑣尾錄』 제1 「壬辰南行日錄」, 「義兵從事官宋齊民通文」; 『亂中雜錄』 제1, 임진년 7월 「宋齊民檄文」, “故來與忠淸士友 號召義徒…從衆望共推 前都事趙憲 爲左義大將 以禦黃永以下之賊 前察訪朴春茂 爲右義大將 以防錦江以上之賊.”
- 8) 3권 1책의 목활자본으로 1895년 11대손 朴文圭가 편집·간행하였다. 300여 년이나 지난 이후에 편찬하였기 때문에, 박춘무의 遺稿라고 할만한 1차자료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序文은 淵齋 宋秉璿(1836~1905)이 썼으며, 권말에 旁9代孫 朴夏東의 跋文이 있다. 참고로 目錄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권1 -- 檄文, 再檄文, 遺子孫文(學義時遺子孫文), 書 贈李御史
  - 권2 -- 行狀, 墓表, 墓表追記(花遷堂朴公墓表追記), 謚狀, 禮曹啓目, 延謚節目, 三代倡義錄序
  - 권3(雜著) -- 東史文獻錄(東史文獻錄 土亭李先生門人), 壬辰日記, 學義時事, 壬辰錄, 春坡堂錄(春坡堂錄卷之八), 懲愆錄(西崖懲愆錄), 抗義編(重峰抗義編), 祠宇(祠宇 懷仁後栗祀), 追錄 疏本(追錄 上言草)
- 9) 이에 따라 그 의병활동 사실에 대한 古邑志類 및 現行 市郡誌 등에서의 기록도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1989년 3월 26일 淸州市 中央公園에서 개최된 그 戰蹟碑

서 그 문집을 자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우선, 후대의 傳承過程에서 事實의 潤色·介入與否에 대해 면밀한 자료비판이 앞서야 할 것 같다.<sup>11)</sup> 실제로 그 문집의 기록대로라

제막식 당시에 배포된 자료인 「愍襄公花遷堂朴先生戰場紀蹟碑建豎錄」에 따르면, 그의 의병활동 사적이 지역사회에 일반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61년 趙健相이 편찬한 『淸州誌』의 간행 이후라고 소개하고 있다. 물론 古邑志類에 박춘무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매우 늦어서 1933년 李秉延이 편찬한 『朝鮮實輿勝覽』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여기에서는 ‘忠淸北道 淸州郡 原從勳條’에서 “朴春茂 字至元 號花遷堂 順天人 文愍公仲林后 土亭門人 官富平府使 壬辰與趙重峯倡義 以李時發韓赫 爲從事官 累立戰功 扈駕龍灣 綠宣武勳 贈左參贊 諡愍襄 屏溪尹鳳九撰墓表 吏判南秉哲撰諡狀 享後栗祠 有遺集”이라고 하여, 그 문집을 열람 하였던 듯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朝鮮實輿勝覽』이 일제식민치하의 암울한 시기에 이루어진 개인적 저작이었던 관계로 일반에게 영향은 크지 못하였던 듯하다.

- 10) 『花遷堂集』권2에는 1764년(英祖 40) 凝川 朴聖源이 쓴 「三代倡義錄序」가 실려 있는데, 이것으로 볼 때 박춘무를 비롯하여 그 次男 朴東命 및 손자 朴弘遠 3대의 창의사실에 대해 별도의 책자가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문집 편찬 이전에 逸失된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박춘무 후손들의 사적에 대해서는 임진왜란 때 함께 從軍하였던 박동명, 李适의 亂 및 丙子胡亂 때에도 창의한 부친 박동명을 좇아 군사를 지휘한 박흥원, 玄孫(5대손)으로 李麟佐의 亂 때 창의했던 朴之堽의 활동을 기록한 문집으로 『梅隱堂實記』가 전해오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역시 『花遷堂集』을 간행할 때 함께 판각하였는데, 3대의 사적임을 표시하기 위해 독특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즉 「梅隱堂實記」에 「持平公實錄」을 并附하는 형식을 취해 하나의 목록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각 분리하여 2권1책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박흥원의 사적은 「梅隱堂實記」의 끝부분에 첨부하는 형식(附下)을 통해 별도의 사적임을 드러내기 위한 배려를 하였다. 한편 이 자료는 『順天朴氏愍襄公派譜』 乾(1991, 順天朴氏愍襄公派譜編纂委員會)을 통해 비로소 공개된 듯한데, 참고로 그 목록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梅隱堂實記(附錄, 권1) 1) 行狀, 旌閭重修銘, 諡狀, 丙子錄, 遺書(遺子孫文), 事實  
2) 宣務郎行狀(附下) -- 行狀, 墓表, 遺事

持平公實錄(并附, 권1) -- 行狀, 墓表, 檄若文後序(奉讀 花遷先祖檄若文後序), 頒教文, 揚武原從錄券(揚武原從功臣錄券), 追錄 上言草

- 11) 『花遷堂集』의 序文을 쓴 송병선은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이미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公之遺文 羅於鬱攸 存者無哉 雲仍僅得檄文及公私文蹟 編爲一冊 將謀入梓以壽之 嗚呼 現今 諛淫之辭 塞路滔天 人不復知有義理 則斯不足爲公之重 而宜爲世道之所重也” 즉 본래는 박춘무의 遺文이 많았으나, 문집을 간행할 당시에는 대부분 逸失되어 후손들이 겨우 檄文 정도를 얻어서 책을 만들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그 사실여부를 의문시하여 논란도 없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박춘무의 起義事實을 처음 世間에 드러낸 인물도 다름아닌 송병선의 선조인 尤庵 宋時烈(1607~1689)이었다는 점이다. 즉 『宋子大全』권164, 「刑曹判書李公神道碑銘」에서 송시열은 碧梧 李時發이 박춘무의 휘하에서 從事官으로 활약하였음을 밝히는 형식으로 박춘무의 舉義事實을 소개하였다. 그러므로 송병선으로서는 박춘무의 倡義事實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고 하겠다. 한편, 이 서문은 『淵齋先生文集』권33, 「花川堂朴公春茂遺集序」와는 字句가 조금 다른데, 본래 草案本을 후손들의 요청에 따라 다소 상세하게 수정한 것으로 『花遷堂集』에 실은 듯하다.

면, 지금까지의 일반적 이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상충되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花遷堂集』을 중심으로 그의 家系 및 修學過程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의병활동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었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그리고 淸州城 收復過程에서의 역할 및 鎭川戰鬪의 勝捷過程과 이후의 行蹟에 대해 나름대로 복원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특히, 청주성 수복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花遷堂集』의 기록이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여러 가지 情況根據를 통해 그 事實性을 推論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次男 朴東命과 孫子 朴弘遠의 活動을 묶어 「史上 類例가 흔치 않은 3대에 걸친 倡義活動」을 소개하고자 한다.

## II. 朴春茂의 倡義背景

花遷堂 朴春茂는 字는 至元, 본관은 順天이며, 花遷堂은 그의 堂號이다. 그의 집안이 淸州地域에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증조부인 朴宜倫 때부터였다.<sup>12)</sup> 순천박씨의 始祖는 高麗 개국공신 朴英規이며, 흔히 平陽朴氏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中興祖인 朴蘭鳳의 君號를 순천의 故地名인 平陽에서 취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순천박씨 가문은 고려초부터 연원하였으나 대부분의 가문이 그러하듯이 이후의 가계는 불분명하여, 실제로는 端宗復位運動을 주도했던 死六臣의 한 사람인 朴彭年의 고조부로 보문각 대제학을 지낸 中始祖 朴淑貞으로부터 계통을 세우고 있다.<sup>13)</sup>

朴淑貞은 益齋 李齊賢(1287~1367) 및 謹齋 安軸(1287~1348) 등 당대 대성리학자의 知遇를 받을 만큼 학문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忠肅王 13년(1326)에는 國子祭主를 지냈고, 關東存撫使로 나갔을 때에는 高城 三日湖에 四仙亭, 강릉 경포대에 鏡湖亭, 울진에 翠雲樓를 세우고 이제현과 안축 등으로 하여금 창건기를 짓게 하면서 풍류를 자랑하였다.<sup>14)</sup> 이후 박춘무의 先代는 朴元象→朴安生→朴仲林으로 이어진다. 朴元象은 박숙정의 다섯 자제 중 막내로 工曹參判(혹은 典書)을 지냈고, 退官 후 당시 公州 부근의 儒城縣으로 낙향하여<sup>15)</sup> 청주 부근에서 순천박씨의

12) 『順天朴氏承仕郎公三代墓碣銘』(1939. 朴魯重 撰) 『順天朴氏實錄』1(1994. 東泉學術文化財團), 785~793 참조.

13) 『順天朴氏實錄』1, 13의 '上系'부분 참조. 한편 『花遷堂集』권2, 「행장」에서도, “其後有集賢殿提學淑貞 是爲公十一代祖也”라고 하여, 先代에 대한 계통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은 역시 11대 祖인 朴淑貞부터이다.

14) 최완수, 1998. 「취금현 박팽년」 『조선왕조 충의열전』(돌베개), 179 참조.

기반을 닦게 된다.

박춘무의 가문은 박안생의 뒤를 이은 8代祖 朴仲林에 이르러 다시 한번 文章家로서의 명성을 드높인다. 朴仲林(1400~1456)은 당호가 閒碩堂으로 세종 5년(1423) 식년시에서 乙科 3인 중 2등으로 급제하여, 당일에 6品職인 仁壽府丞에 발령받는 영광을 누리며 벼슬길에 나아갔다. 集賢殿修撰으로 있으면서 왕세자(文宗)의 師傅로 활약하였고, 修文殿 및 禮文館大提學·集賢殿提學을 거쳐 이조판서에 올랐다.<sup>16)</sup>

그리고 박중림이 이조판서로 있을 때 바로 그의 맏아들인 朴彭年을 비롯하여, 그 門下에서 배출된<sup>17)</sup> 成三問·河緯地 등이 端宗復位運動을 주도하였다. 즉, 단종복위운동은 당시 박중림의 문하에서 하나의 학맥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우선 박중림이 文宗의 스승이었고, 박팽년 또한 집현전 학사들의 수장으로 또 端宗의 스승으로<sup>18)</sup> 金宗瑞(1383~1453) 등 三議政과 더불어 문종의 誥命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sup>19)</sup> 死六臣事件 당시 世祖가 謀議의 배후를 추궁하였을 때, 박팽년이 “家庭의 교훈일 뿐이다”<sup>20)</sup>라고 하였다는 사실이 그 단적인 반증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단종복위운동 때에는 박팽년뿐만 아니라, 그 동생인 引年·耆年·大年·永年 등이 모두 참가하거나 연루되어 참화를 입었다. 이들 형제 중에서 박춘무의 선대는 朴引年으로 7代祖이자 派祖이다. 朴引年은 호가 景春軒으로 역시 집현전 학사로 있으면서 단종복위운동에 참여하여 참화를 당했으며, 그 아들 朴璣도 연좌되었다. 그리고 설화적인 측면이 개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행히 손자인 朴原卿을 ‘義僕’이 몰래 업고 珍島로 숨음으로써 가계를 보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사육신사건으로 絶門의 위기에 놓였던 박춘무의 집안이 다시 재기하고 淸州에 자리

15) 『順天朴氏承仕郎公三代墓碣銘』에서는 박원상이 退官 후 懷德(현재 大田市)으로 낙향하였는데, 鍾鼎家의 명성을 얻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는 『宋子大全』권193, 『高麗典書朴公墓表』도 참조된다.

16) 최완수, 앞의 책, 180~184 참조.

17) 『花遷堂集』권2, 『行狀』, “吏曹判書仲林 在世祖朝丙子 與子醉琴軒彭年 景春軒引年…門人梅竹軒 成三問 河緯地 俱被露梁之禍.”

18) 최완수, 앞의 책, 192~195 참조.

19) 최완수, 앞의 책에서는 박중림과 김종서가 박중림의 장인인 金益生을 매개로 외척관계를 이루었으며, 김종서는 박중림을 대사헌으로 추천하면서 ‘族人’이라고 호칭하였음을 서술하고 있다. 즉, 사육신사건의 배경으로 당시 박중림·박팽년을 매개로 한 하나의 학맥과 다시 김종서 등을 중심으로 한 保王勢力으로서 하나의 인맥이 고려될 만하다.

20) 『花遷堂集』권2, 『行狀』, “當時 世祖考訊曰 誰教此謀 醉琴軒對曰 家庭之訓也.”

를 잡은 것은 그의 曾祖父인 朴宜倫 때부터였다. 박의륜이 청주에 입향하는 과정도 다소 모호한데, 어쨌든 家系의 기록에 따르면 사육신사건의 참화를 입어 珍島로 숨어들었던 그의 집안이 고조부인 朴仁龍 代에 赦免(夢宥)되고 官職까지 제수받음에 따라 물으로 나올 수 있었고, 이어 박의륜이 伯父를 모시고 청주에 정착하였다고 한다.<sup>21)</sup>

청주에 정착한 이후 박춘무의 선대는 당시 지역의 세력 있는 가문과 통혼관계를 맺으면서 빠른 성장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조부 박의륜은 南陽洪氏를 부인으로 맞이하였고, 조부 朴坤孫은 淸州韓氏, 부친 朴箕精(1480~1507)은 龍仁李氏·全義李氏·慶州金氏 등 3명의 부인을 맞이하였는데, 이들 가문은 모두 지역의 勢力家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즉, 박곤손의 부인 청주한씨는 韓孟誠의 딸로 예조판서를 지낸 韓立의 손녀였으며, 박기정의 첫째 부인 용인이씨는 李克儉의 딸로 전라도관찰사를 지낸 李伯指(?~1419)의 증손녀였다.<sup>22)</sup> 특히, 부친 박기정은 字는 殷卿으로 일찍이 학문적 자질을 갖추어 司馬試에 합격하였으나, 관직 진출을 포기하고 지역에서 儒學 訓導·教授로 활동하면서 상당한 학문적·사회적 명성을 쌓았음은 물론 주변의 세력 가문과 연이어 통혼하면서 가문이 번성하는 기반을 닦아 갔다.<sup>23)</sup>

이렇듯 부친 박기정대에 사회적·학문적 기반을 갖추게됨에 따라 박춘무의 집안은 사육신사건 이후 비로소 再起의 기회를 맞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박기정은 경주김씨와의 사이에서 5남3녀를 두었는데,<sup>24)</sup> 맏아들인 朴春英은 1548년(명종 3) 별시문과로 급제하여 사헌부장령·회인현감·대구목사 등을 지냈고, 東洲 成濟元(1506~1559) 등과 교류하면서 학문적 명성을 자랑하였다.<sup>25)</sup> 둘째형 朴春華도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셋째형 朴春蓊은 壽職으로 同樞를 지냈다. 그

21) 『順天朴氏承仕郎公三代墓碣銘』, “諱仁龍 始夢宥 除典農侍副正 於承仕郎公考也 承仕郎公 與伯氏 光州牧使諱宜形 自湖南移奠茲土 谷名曰松倉.” 이때 박의륜이 청주에 정착하게 되는 배경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이미 그의 선대인 朴元象이 懷德으로 낙향한 이후 박중립·박팽년대를 거치면서 ‘懷德~淸州’ 일대에 세거한 배경이 작용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이와 관련해서는 淸州로의 입향조인 朴宜倫의 3男 朴良孫의 경우 忠南 燕岐로 이사하였다는 기록(위의 墓碣銘 ; “良孫主簿 後移燕岐”)이 있어 주목된다. 그리고 朴箕精이 활약하였던 中宗·明宗년간에 이르면, ‘懷德~淸州’ 일대에 세거하였던 순천박씨의 기반이 재건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리고 그 중심지는 박중립이 활동하던 시기의 全義·全東 일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2) 주) 12와 같음.

23) 박기정의 墓地銘은 明宗代 최고 遺逸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東洲 成梯元(『明宗實錄』권33, 21년 7월 戊申條 참조)이 지었는데, 성제원은 박기정의 맏아들로 懷仁縣監을 지낸 朴春榮과 교우관계에 있어 그 부친의 묘지명을 지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通訓大夫教授朴公諱箕精墓地銘』 『順天朴氏實錄』1, 1030~1031 및 『朝鮮寶輿承覽』 『淸州郡』, 人物篇 學行條 참조.

24) 박기정의 묘지명에서는 그 가족관계를 경주김씨와 관련해서만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용인 이씨와 전의이씨 사이에서는 소생이 없었던 듯 하다.

리고 동생 박춘蕃은 자는 慶元으로 임진왜란 때 함께 종군하였으며, 戶曹判書에 증직되었다.<sup>26)</sup>

한편 박춘무 자손대의 주요 관계진출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박춘용의 장남 박錫命은 임진왜란 때는 조방장으로 활약하였고 벼슬은 安州牧使에 이르렀다. 박춘번의 장남 박順命은 副司果, 그 3남 박三命은 蔭仕로 監察에 나아갔다고 한다. 박춘무의 경우에도 장남 박新命은 宣傳官을 지냈고, 부친을 따라 종군한 차남 梅隱堂 朴東命(1575~1636)은 관직이 泰安郡守에 이르렀다.

이렇듯 박춘무의 집안은 그 부친 박기정대 이후에는 청주 부근에서 하나의 뚜렷한 가문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그에 상응한 경제적 규모도 갖추어 갔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계적 배경은 박춘무의 창의기병에 직접적인 기반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즉, 박춘무의 의병진은 李時發과 韓赫이 종사관으로 참여하는 것<sup>27)</sup> 외에는 군사지휘를 그 동생 박춘번과 둘째 아들 박동명이 맡는<sup>28)</sup> 등 주로 家系的 基盤 위에서 단기간에 成軍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sup>29)</sup> 그런데 이것은 창의기병을 단시일에 실행에 옮길 수 있을 만큼 사회경제적 조건도 나름대로 갖추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의병활동에 필요한 병기 및 군량조달과 관련해서는 종사관이었던 이시발과 한혁의 역할도 주목해 볼만하다. 종사관의 임무에서 주요 비중의 하나가 병기 및 군량조달 등의 후방지원 업무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우선 이시발<sup>30)</sup>은 그 가문이 고려말 名儒

25) 『通訓大夫教授朴公諱箕精墓地銘』, 『順天朴氏實錄』1, 1030~1031.

26) 『花遷堂集』권2, 「行狀」 및 『朝鮮實輿承覽』, 「淸州郡」, 人物篇 原從勳條 참조.

27) 『花遷堂集』권2, 「行狀」, “及至壬辰之亂 以忠翼公李時發 及韓赫爲從事.”

28) 『花遷堂集』권2, 「諡狀」, “以子東命 及弟春蕃 爲前鋒.”

29) 이와 관련하여, 『花遷堂集』권1, 「檄文」에서, “主欲方深 尙晚爲臣一死 茲與一二同志 糾合數千義士”라고 기술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즉 박춘무의 의병진은 처음부터 몇몇의 외부인사만이 참여하는 형태로 謀議가 진행되었음을 추측케 하는 대목이다.

30) 이시발이 박춘무의 의병진에 종사관으로 참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시발은 임진왜란 당시 承文院의 假注書로 있었는데, 서울마저 위협받고 도성 안의 민심이 흉흉해지자, 우선 老母를 山谷으로 피난시키고자 고향인 淸州 草坪으로 내려왔다. 귀향 후 노모와 가족을 從堂叔이자 스승이었던 李得胤에게 의탁하여 靑川부근 後穎里로 피난시킨 다음 곧바로 상경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미 선조는 西遷하였고 서울로 가는 도로도 왜군의 수중에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듣게되자, 그대로 피난처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인척관계에 있었던 박춘무를 중심으로 청주부근에서 소모활동이 이루어지자,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당시 그는 촉망받는 文才로 떠오르고 있었으므로, 24세의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종사관으로 활약하면서 주획업무를 주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된 사실은 『碧梧遺稿』권7, 「自敘」등이 참고된다. 그러나 이시발은 1593년 4월부터는 承文院 正字로 다시 관직에 복귀함으로써, 박춘무 의병진에 대한 충분한 기록을 남기지는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益齋 李齊賢의 후손으로 일찍이 청주 북부의 梧根驛에서부터 草坪에 이르는 사이에 세거하였으므로 나름대로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특히, 그의 집안은 박팽년 대에는 순천박씨와 통혼관계를 맺은 적도 있었으므로,<sup>31)</sup> 이때까지도 일정한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花遷堂集』 등의 기록에서는 그가 격문 작성 및 주획업무를 주관한 것으로만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韓赫에 대해 살펴보면, 그는 前職 參奉을 지냈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사실이 없다. 그런데 만일 그가 淸州韓氏라면 일정하게 군수조달에 기여했을 것으로 예상해볼 만하다. 淸州韓氏라면 일찍이 고려초부터 청주지역에서 유력호족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었고, 특히 조선초에 번성하였다.<sup>32)</sup> 따라서 그만큼 왜군의 약탈에 대한 위기의식도 상대적으로 강했을 것이므로, 自保의 側面에서도 의병활동에 적극적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된다. 특히 그 세거지는 청주의 남서부에 걸쳐 있었는데, 주변의 八峯山<sup>33)</sup>에 인근한 서부지역은 왜군의 노략질이 충분히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부친 박기정 대부터 통혼관계에 있던 청주한씨 가문에서 군량을 제공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sup>34)</sup>

그런데 박춘무가 이렇듯 창의기병하고 호서의병의 우의대장으로 추대되기까지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기반보다는 학문·학연적 배경이 보다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起義의 계기를 마련한 송제민이나, 함께 좌의대장으로 추대된 조현이나 모두 이지함의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사이였으며, 이들은 이미 청년시절에 함께 ‘歲寒契’를 조직<sup>35)</sup>하기도 하였다. 즉, 당시 保寧地域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이지함은 호서지역은 물론 호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31) 『碧梧遺稿』권8, 「神道碑銘」, “國朝有尹仁 實爲平安道觀察使 是生昌平縣令公麟 娶朴醉琴彭年女 世傳有陰功 生八男.”  
 32) 1530년에 간행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淸州牧 人物條 本朝篇’의 대부분이 청주한씨로 기술되어 있다.  
 33) 청주의 남서부에 위치한 名山의 하나로, 조선후기 읍지에서부터 기록이 등장한다. 『輿地圖書』淸州牧 山川條에서는, “八峯山 在州南十五里 文義多子山 來爲安心寺主脈”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34) 필자로서는 이시발은 주획업무를, 한혁은 군량조달을 주로 담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도 하고 있다. 한편, 家傳上으로는 박기정의 셋째 사위인 鄭舜年과 박춘무의 첫째 사위인 閔汝涵이 군량을 제공했다고 전해오기도 한다. 정순년은 본관이 東萊이고 兵判 而漢의 현손으로 主簿를 지냈다고 하며, 민여함은 본관이 驪興이고 부친은 思謫으로 軍資監正을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또한 가계의 전승일 뿐이어서, 역시 하나의 추정에 그칠 뿐이다.  
 35) 『海狂集』券下, 「遺事」, “戊寅 先生年三十 從土亭 於湖西 始與趙重峯朴春茂相見 尼言結交 託爲歲寒契.” 한편, 이때 ‘歲寒’이라는 契名을 택한 것에 대해, “蓋先生 深之二公之忠義 期以世亂共濟艱危 此其所以以歲寒 名契之義也歟”라고 하고 있던 것에서, 송제민의 소모활동에 박춘무와 조현이 두 수반으로 추대되는 까닭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지역에서 하나의 뚜렷한 학풍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學緣의 紐帶를 바탕으로 송제민이 소모활동을 벌이게 되자 박춘무·조현 등이 의기투합하여 단기간에 ‘기각지세’로 표현된 연합작전까지 구상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춘무가 언제부터 이지함의 문하에서 수학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당시 그는 동생 박춘번과 함께 居處를 이지함이 있던 淸州 山東의 花川<sup>36)</sup>으로 옮기고 이를 기념하여 堂號를 花遷堂이라고 붙이면서까지<sup>37)</sup> 그의 학문을 추종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박춘무의 인물과 학문적 자질을 높이 평가한 사람도 다름아닌 조현이었다. 우선, 조현은 당시 朋黨과 學政의 폐단을 논한 상소문에서 이지함을 ‘東方의 伯夷’에 비유하여 贈職과 致祭를 요청하면서, 그 수제자로 조카였던 明谷 李山甫와 더불어 박춘무를 꼽으면서 그 학문을 ‘恬靜自守’<sup>38)</sup>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조현은 임진왜란을 예견하고 그 일년 전에 군사적 방어책으로 올린 「備倭之策」에서는 호서지방의 要害處를 지킬만한 자질을 갖춘 民間의 指揮官으로 박춘무를 公州의 鄭晉生과 더불어 추천하면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淸州의 前 察訪 朴春茂는 매우 침착하고 智謀를 갖추었습니다. 公州의 前 參奉 鄭晉生은 氣魄이 있어 義奮과 策略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백성들을 이끌고 한 지역에 머물러 지키도록 한다면, 士卒들을 교화하여 서로 힘을 합해 요해처를 지켜내도록 할 만한 策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 있을지도 모를 盜賊들의 叛亂도 저절로 소멸시켜 감히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sup>39)</sup>

즉 당시 박춘무의 인물됨은 매우 사려깊고 智謀를 갖추어 한 지역의 백성들을 교화할 만한 덕망과 학식을 갖춘 인물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외침을 틈탄 백성들의 왕조정부에 대한 불만과 저항도 충분히 자제시킬 수 있을 만한 인품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대목에서는 조현의 박춘무에 대한 信望이 어느 정도였던가를 짐작하게 한다.

이렇듯 박춘무는 당시 호서지역에서 이산보와 더불어 이지함의 학문을 계승할 대표적인 학

36) 『朝鮮輿輿承覽』, 淸州郡 山川條, “花川 在郡東四十里 則七里灘下流.”

37) 『花遷堂集』권2, 「行狀」, “及長 受業於士亭李先生門下…而久留門下 則以離親爲憂 與先生舍于 淸州山東花川 因號花遷堂 陪親從師 誠以養志.”

38) 『宣祖修正實錄』권20, 19년 10월, 및 『重峰集』권5, 「辨師誣兼論學政疏」, “獨於李之涵 高世之行 未有所及…尤好獎誨後生 李山甫之孝友忠信 朴春茂之恬靜自守 具有所自.” 한편 그 語義는 ‘마음이 평정하고 고요하며 스스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여 지킨다’라는 뜻이다.

39) 『重峰集』권8, 「請斬倭使疏 附 備倭之策」, “淸州 前察訪朴春茂 深沈有智慮 公州 前參奉鄭晉生 慷慨有膽略 並令率民 居守一方 則不惟可教士卒以戮力鎮守之策 而亦足潛消他盜 俾不敢竊發矣”

자<sup>40</sup>)로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상당한 인품과 덕망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학식과 덕망을 일찍이 발견한 사람도 다름아닌 조헌이었다. 그러므로 송제민의 교섭으로 이지함의 문하를 중심으로 호서의병이 추진될 때 박춘무는 조헌과 대등한 위치에서 우의대장으로 추대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때에 成軍된 박춘무 의병진의 규모는 대략 1000여명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의병진의 규모와 관련하여 『花遷堂集』에서는 700여 명<sup>41)</sup> 數千名<sup>42)</sup>이라는 두 가지 기록이 있는데,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볼 때 대략 1000여 명 정도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 같다. 우선 주목되는 자료는 그 휘하에서 종사관으로 활약한 이시발의 『碧梧遺稿』인데, 여기서는 그 규모를 1000여 명으로 기록하였다.<sup>43)</sup> 다음으로는 송제민의 격문을 들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20일 동안에 2000여 명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7월 4일 출정식 당시 조헌이 모병한 의병진의 규모는 數百으로 1000명이 되지 못했다.<sup>44)</sup> 그러므로 박춘무 의병진의 거병 당시의 규모는 1000여 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듯 박춘무가 비교적 단기간에 1000여 명에 달하는 의병진을 구성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아무리 학문적·사회경제적 덕망과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주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그만한 사회적 분위기가 작용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름아니라 이즈음이면 왜군에 의한 무차별적 파괴와 야만적인 약탈을 겪게되면서 일반 백성의 민족적 저항의식도 그만큼 고양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 의한 인적·물적 약탈의 참화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45)</sup> 왜군은 일단 주둔 거점을 마련하면 적게는 5~6명, 많게는 20~30명씩 떼를 지어 주변지역에 대한 약탈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민의 대응은 일차적으로 피난하여 가족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내 지역민들은 피난처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내부적으로

40) 『花遷堂集』권3, 「東史文獻錄 士亭李先生門人」에서는 이지함의 문인을 이산보, 박춘무, 송제민, 徐致武, 金應天의 순서로, 『東國文獻』(奎章閣 도서번호 : 奎4138)「門生篇」에서는 이산보, 송제민, 서치무, 박춘무, 김응천의 순서로 기술하고 있다.

41) 『花遷堂集』권3, 「行狀」, “亦起義旅 得衆七百.”

42) 『花遷堂集』권3 雜著, 「舉義時事」, “七月初四日起旅 得數千義士.”

43) 『碧梧遺稿』권8, 「神道碑銘」, “募得千餘人.”

44) 『重峰集』권8, 「起兵後疏」, “乃與數三同志 問募閑役人數百 以七月四日 建旗招衆 篇走海郡 得募千人.” 즉 청주성전투에 참가한 조헌군의 병력은 1600여 명이었다. 그러나 이 병력은 일단 公州에서 成軍한 이후, 다시 洪州 등 湖右地域을 돌면서 추가 모병을 거친 이후의 규모였다.

45) 왜군의 주요 활동무대였던 경상도 지역의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李樹健, 1990. 「朝鮮前期 慶北地域의 義擧와 義兵」, 『慶北義兵史』, 274~275 참조.

는 피난의 지속에 따른 식량수급 등의 문제도 없지 않았겠지만, 무엇보다도 침략자 왜군에 의한 무차별적 파괴와 야만적인 약탈을 겪게되었기 때문이다. 청주지역에서 이러한 사정은 의병장의 한 사람으로 활약했던 朴春蘭과 관련된 일화를 통해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다.

형 春萱, 동생 春蓮과 더불어 孝道하고 友愛가 깊었다. 임진왜란을 맞아 모두 東林山 북쪽 光大洞으로 피난하였다. 왜적이 갑작스레 쳐들어왔던 까닭에 형 춘환과 부인만이 父母를 지키다가 한꺼번에 살해당했다. 춘란과 춘연은 부모와 형, 부인의 시신을 거두어 묻고는, 온통 원수를 갚을 생각뿐이었다. 그때 왜적은 청주에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었는데, 춘란의 형제는 陣中으로 돌격해 들어갔다. 춘란이 왜적 2명을 사살하고는 그 목을 베어 꼬챙이에 찔러 兵使에게 바쳤다. 병사가 (이 사실을) 보고하니, 곧바로 部將에 제수하였다.<sup>46)</sup>

즉 부모와 가족이 왜군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살해당하는 사태를 겪게되면서, 자발적 발로로서 일반 백성의 저항정신이 싹터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戰亂 이전 지배층의 가렴주구에 대한 저항의식으로 이반되었던 민심도 점차 同族的 公同運命體意識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위의 일화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었던 것인가에 대해 잘 설명해준다고 하겠다. 일찍이 國王의 召募敎書에도 뜻있는 志士들의 號召에도 별반 반응이 없던<sup>47)</sup> 오히려 한때는 침략군인 왜적의 嚮導가 되기까지 했던 일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救國 대열로 나서는 데에는 이렇듯 왜군에 의한 참화를 겪게되면서부터이다. 이제 그들은 自衛自保의 측면에서도 의병활동에 본격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민족적 저항의식도 고양되어 갔다.<sup>48)</sup> 즉 임진왜란이 발발하고도 3개월이 지난 7월에 들어서야 의병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까닭이다.

박춘무의 의병진도 대체로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기에 단기간에 대규모의 군중을 모을 수

46) 『輿地圖書』 「淸州牧」, 人物條, “朴春蘭 與兄春萱弟春蓮孝友 俱至壬辰倭亂 避亂于東林山北光大洞 倭賊猝入 春萱與妻抱父母 一時被戮 春蘭春蓮 收瘞父母及兄妻屍 切欲報讎 其時倭賊大陣于本州 春蘭兄弟 突入陣中 春蘭射殺倭賊二人 春箴斬其首 獻于兵使 兵使上達 春蘭卽除部將.”

47) 『宣祖實錄』 권27, 25년 6월 丙辰, 慶尙道 招諭使 金誠一의 狀啓, “本道陷敗之餘 四散崩壞者 非但逃軍敗卒爲然 大小人民 擧入山林 鳥棲獸伏 雖反覆復開諭 而無人應募.”

48) 임진왜란 당시 의병활동의 사상적 배경으로는 흔히 儒敎的 勤王精神· 鄉土保全意識· 民族的 抵抗意識이 논의되는데, 勤王· 自保을 넘어 討賊의 대열로 나섰던 일반 민중의 민족적 저항의식이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축적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일반 백성의 이러한 民族的 覺醒이 야말로 身分的 對決意識을 넘어 救國의 隊列에 동참하는 바탕을 이루었다고 하겠다.

있었을 것이다. 당시 박춘무의 거주지였던 淸州 福臺里<sup>49)</sup>를 비롯한 淸州 西部의 父母山~八峰山 일대는 아직 왜군의 직접적인 피해를 겪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sup>50)</sup> 그런데 이제는 왜군이 公州를 비롯한 호우지역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었으므로 그만큼 위기의식도 고조되고 있었을 것이다. 이 즈음에 燕岐地域에서 鄭萬億이라는 俗名를 가진 僧兵將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기록<sup>51)</sup>은 이러한 사정의 반영이었다고 여겨진다.

이에 따라 청주 서부지역에서도 당시 호서일대에서 인품과 학문을 자랑하던 박춘무를 중심으로 한 창의기병의 움직임도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박춘무가 「學義時遺子孫文」에서 “大駕西奔 生靈魚肉 忠義之士 思欲奮臂勦滅 咸願鄙夫出與謀議 故不謀於妻子”<sup>52)</sup>라고 하여, 倡義 당시 자손들에게 일단의 所懷를 밝힌 부분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즉 박춘무의 창의기병은 일반 민중이 왜군에 의해 魚肉처럼 살육당하고 있던 사태에 대항한 민족적 감정이 일반적으로 발로하고 있던 시기에, 마침 송제민과도 접촉이 이루어짐에 따라 共論의 推戴를 수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당시 단기간에 의병진을 구성하였던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휘하의 주요 편제는 주로 家屬을 동원하여 구성했던 듯하다. 家系 이외의 인사로는 종사관으로 이시발과 한혁이 참가하였을 뿐, 군사의 지휘는 그 동생인 박춘번과 둘째 아들 박동명이 선봉을 담당하였다. 그렇지만 박춘무의 의병진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단순히 鄉里自保라든가 復讐討賊만을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송제민의 교섭을 통해 조현·김천일·고경명과 이른바 ‘기각지세’로 표현된 상호연대적 공동작전의 구상이 추진되었으므로, 군사의 운용도 이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이다. 실제로도 일단 청주성수북전에 참가하고, 이어 진천으로 진군하는 까닭이

49) 『愍襄公花遷堂朴先生戰場紀蹟碑建豎錄』, 『愍襄公花遷堂朴先生戰場紀蹟碑銘』(1988. 金敬洙 撰), 29, “自淸州福臺 操鍊於爺孃山.” 한편, 成均館長 金敬洙가 지은 이 碑文은 문헌자료적 기록뿐만이 아니라, 당시까지 전해내려오던 家系의 逸話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50) 임진왜란 당시 청주지역에서 창의한 박춘무, 朴友賢(守義洞), 趙綱(蓮亭洞) 등이 모두 청주 서부의 부모산~팔봉산 일대에 세거하고 있던 가문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51) 『聞韶漫錄』(尹國馨 著 ; 『大東稗林(精嘉堂本)』19(1991, 國學資料院 影印本)), 509, “亂初余在公州 儒生申蘭秀張德蓋等 來見言曰 燕岐有僧 俗名鄭萬億者 能討賊 人呼僧將軍 名聲藉甚.” 그런데 이정만역을 청주성 전투에서 활약한 義僧將 靈圭로 기록한 문헌도 있는데(『藥坡漫錄』(李希齡 著)), 이 기사의 다음에 “牧使許頊亦言 本州僧靈圭自募曰 萬億甚劣 亦得將軍之命 我亦從軍”이라고 하고 있어, 이희령이 혼동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宣武原從功臣錄券』에는 ‘靈圭’라는 이름의 승병장이 1등훈과 2등훈에 각각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同名異人의 승병장이 있었음도 참고로 밝혀둔다.

52) 『花遷堂集』권1, 「學義時遺子孫文」.

었다.

일단 조직을 갖춘 박춘무의 의병진은 7월 4일에 향리인 북대리에서 출정식을 한 다음, 부근의 翁孃山에서 군사훈련을 하며 청주성전투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앞서 살펴 본 朴友賢 義兵陣이 활약하기 이전에는 청주성으로 진군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일련의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정문인 남문밖에 주둔하여 일단의 전투를 수행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으로 살펴 본 박춘무 의병진의 학문적·사회경제적 기반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춘무가 청주지역에서 의병장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은 우선 그 증조부 이후 닦아온 지역적 기반에 힘입은 것이었다. 특히 그 부친 朴箕精은 학문적 명망에 있어서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사육신사건 이후 節門의 위기까지 몰렸던 그의 집안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청주부근에서 하나의 유력세력으로 성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반을 닦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이미 조선초부터 ‘청주~ 회덕’ 일대에 세거하였던 그 선대의 배경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그의 가문이 淸州를 비롯한 燕岐·懷德地域을 중심으로 세거하였으므로, 주로 洪州·公州·沃川 등지와 인연을 맺고 있던 조현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좌·우지역, 또는 상·하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박춘무의 창의기병에 있어서 보다 직접적인 기반을 제공한 것은 학연, 즉 학문적 명망이었다. 일찍이 그는 이지함의 문하에서 수학할 위해 거처를 옮길 정도의 열정으로 그 학문을 추종하였고, 그 결과 호서 및 호남지역에서 이산보와 더불어 그 문하를 대표할 만한 학자로 성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김천일 의병진의 구상에 따라 호서지역으로 내려와 소모활동을 전개한 송제민도 다름 아닌 이지함의 문하였으며, 함께 좌의대장으로 추대된 조현 또한 이들과 동문수학한 사이였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이미 청년시절부터 艱難을 함께 共濟하기로 한 ‘歲寒의 故友’였다. 따라서 송제민이 호서지역에서 소모활동을 전개하고자 하였을 때,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지역의 명망가도 다름 아닌 박춘무와 조현이었다. 즉 박춘무와 조현 두 사람을 수반으로 호서지역의 의병진이 편성되는 까닭이었다.

그렇지만 박춘무의 의병진이 단기간에 대규모의 의병진을 편성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은 무엇보다도 당시 일반 백성의 민족적 각성에 바탕한 것이었다. 왜군의 점거가 장기화되면서 그 만큼 피점령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도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반 민중들은 支配階層의 收奪에 따른 反感과 身分의 對決意識을 뛰어넘어 民族的 抵抗의 隊列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이야말로 7월 이후에는 의병진의 봉기가 일반화될 수 있었던 기본

적인 원동력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일단의 진용을 갖춘 박춘무의 의병진은 이른바 ‘기각지세’적 연합작전의 첫 공략대상인 청주성을 향해 진군하여 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 Ⅲ. 朴春茂의 義兵活動

#### 1. 淸州城 奪還에서의 役割

1592년 8월 2일의 淸州城 收復은 임란 초기 의병이 거둔 주요 전과의 하나였다. 이 전투의 승리로 조선군은 湖西地方으로 우회하여 鎭山을 통해 湖南으로 진출하려던 왜군의 예봉을 꺾을 수 있었다.<sup>53)</sup> 당시 왜군은 7월 17일 明將 祖承訓이 이끈 제1차 평양성전투 이후 비록 전투에서는 승리했으나, 明軍의 참전에 따른 충격으로 이른바 ‘京城軍議’를 통해 長期籠城戰으로 전환하고 군량조달을 위해 호남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왜군은 대규모로 서울을 비롯하여 鎭川·淸州 등지로 하향하여 주둔하기 시작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호남 입성의 교두보인 鎭山의 공략에 골몰하고 있었다.<sup>54)</sup> 그러므로 이러한 시기에 의병진이 거둔 청주성 수복은 임란 초기 왜군이 주둔 거점의 하나로 설정했던 최초의 邑城奪還이었다는 점에서 전략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조선군의 士氣를 회복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심리적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주성 수복과 관련된 의병활동으로는 일반적으로 重峯 趙憲과 僧將 靈圭의 활약만이 알려져 있다. 즉 청주성전투 당시 정문인 南門의 공략을 담당한 또 다른 의병장 朴春茂의 활약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조차 최근에야 비로소 그 사실이 인식되기 시작했다.<sup>55)</sup> 그런데 앞서 사실의 재구성 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주성 수복 당시 남문공략에 대한 『花遷堂集』의 기록도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여러 가지 情況 根據를 통해 그 事實性을 推論해볼 수밖에 없다. 당시 청주성의 주요 전투지역은 서문 밖이었고, 8월 1일 수복전은 조현이 주도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 청주성의 공략에 임하는 조현의 작전구상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이제 이 문제에 착안해보면, 청주성전투에서 박춘무 의병진이 수행한 역할도 보다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8월 1일 청주성 수복전 당시 조현의 작전지역은 승장 영규가 일련의 전투를 벌였던 서문 밖

53) 이석린, 앞의 책, 148~149 참조.

54) 趙溪來, 1995. 「명군의 참전과 전세의 변화」 『韓國史』 29(國史編纂委員會), 75~79 참조.

55) 주) 9 참조.

이었다. 당시 호우지역에서 청주로 진군할 때 그 대로는 빙고현을 넘어 청주성의 남서부와 직면하게 되므로, 서문 또는 남문 밖이 주요 전투지역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형세였을 것이다. 특히 氷庫峴에서 社稷壇으로 이어지는 서문의 對峰, 즉 社稷山은 청주성안의 적세를 관망하기에 유리한 高地이므로 일찍부터 방어사 이옥을 비롯하여 승장 영규도 이곳을 중심으로 주둔<sup>56)</sup>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 진군한 조현의 의병진도 영규의 승병진과 합세하고 있었으므로<sup>57)</sup> 역시 이곳에 주둔하였을 것이다.<sup>58)</sup>

한편,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박춘무의 의병진은 적어도 향토의병장의 한 사람이었던 박우현이 7월 26일경 전몰하기 이전에는 청주성으로 진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미 빙고현의 우측 사직산은 僧·官兵이 주둔하고 있었으므로, 아마도 남문 밖의 남들지역에 진을 치고 남문의 공략을 구상하게 되었을 것이다. 즉 영규의 승·관병은 서문을, 박춘무의 의병진은 남문을 공략대상으로 설정한 가운데 여러 차례 접전이 있었을 것임을 추정해 볼 만하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분담은 조현이 진군한 이후에도 이미 두 사람이 각각 호서의병의 좌·우대장으로 추대되었으므로, 청주성전투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청주성을 둘러싼 아군의 작전지역이 이미 이렇듯 역할분담이 이루어졌으므로, 8월 1일 조현이 청주성 수복전을 지휘할 때에는 사실상 北門에 대한 역할부여만 구상하면 되었다. 실제로 조현은 북문지역의 작전은 방어사 이옥이 담당하도록 구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다음의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56) 당시 영규와 조현은 모두 빙고현(또는 화청령)에 주둔하였다.

57) 참고로, 조현은 당시 충청도순찰사 윤선각 및 방어사 이옥과도 친분관계를 갖고 있었다. 『重峰集』권8, 『淸州破賊後狀啓別紙』, “臣於忠淸巡察防禦 皆有素交.”

58) 청주성전투 당시 박춘무의 의병진은 조현의 진군에 앞서 청주성 남문 밖의 ‘남들(현재 청주시 慕忠洞·秀谷洞 일대)’에 주둔한 것으로 전해온다. 그런데 조현이 서문의 對峰, 즉 社稷山에 陣을 설치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필자의 생각으로는 박춘무의 의병진도 역시 남문의 대봉, 즉 현재 西原大學校자리에 設陣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야만 高地에서 적의 동태를 관망하며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두 자료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輿地圖書』淸州牧 山川條 華淸嶺에서는, “華淸嶺 在州南四里 國土峯來爲邑基 右輔 萬曆壬辰 重峯趙憲 陣于此 擊倭大捷”라고 하여, 조현이 邑城의 右輔인 화청령, 즉 빙고현에 주둔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重峰集』부록 권4, 『遺事』에서는, “遂退陣於對峰 以臨城中”이라고 하여 조현이 청주성전투 당시 서문의 對峰으로 일단 철수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즉 본래 陣을 쳤던 서문의 대봉, 즉 사직산으로 돌아가서 高地에서 성안의 동태를 관망했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사정은 『淸州誌』(1961, 趙健相 編), 제1편 舊淸州誌 제6장 山川篇에서 ‘華淸嶺’에 대해, “西쪽으로 四里, 宣祖 壬辰 8월에 趙重峰이 이 山에 陣을 치고 倭兵을 擊退하여 크게 이긴 자리이며, 往日에는 社稷壇이 있었고 오늘은 忠魂塔이 서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데서도 추론이 가능하다.

전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선생(\*조현)은 방어사 이옥에게 북문 밖에 병력을 매복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옥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적들이 달아날 수 있었다. 이에 軍中에서 이옥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sup>59)</sup>

즉 조현은 8월 1일 왜군과의 접전에서 일단의 勝氣를 잡게되자, 아직 전투지역에 들어있지 않았던 북문밖에 방어사 이옥으로 하여금 관군을 매복하여 왜군의 퇴각에 대비하도록 요청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사실 조현은 이미 청주로 출발할 당시에 방어사 이옥에게도 여러 차례 진군을 종용하고 있었다는 점<sup>60)</sup>에서, 북문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하나의 궁여지책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다시말해 본래는 西門을 비롯하여 南門·北門에서 民·官兵이 일제히 공격을 단행하여 청주성을 수복할 작전구상을 세웠으나 방어사 이옥이 요청을 거절함에 따라, 북문에 대해서는 전투의 승기를 잡게되자 그 차선책으로 왜군의 탈출에 대비하여 매복이라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러나 방어사 이옥은 이것마저도 거절함으로써 왜군의 잔여세력은 북문을 통해 진천방면으로 퇴각하고 말았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조현과 영규의 활약으로만 알려졌던 1592년 8월 2일 청주성 수복은 사실상 6월 하순 왜군의 점령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된 義·僧·官軍의 활동이 하나로 축적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는 영규가 지휘하는 승병은 물론 박우현·박춘란 등 여러 갈래의 향토의병진이 활약하였고, 방어사 이옥과 조방장 윤경기가 지휘하는 관군도 그 초기의 전투를 이끌었다. 즉 당시 청주성수복과 관련해서는 淸州 以西부터 湖右地域의 義·僧·官軍을 포함한 충청도의 관·민병이 총동원되는 듯한 형세를 이루고 있었다. 다만, 이 과정에는 충청도 방어의 최고책임자인 순찰사 윤선각도 귀추를 주목하고 있었으나, 끝내 관군 주도라는 입장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의병활동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러한 일련의 청주성 전투과정에서 일찍이 동문수학한 歲寒의 故友로서 함께 호서의병의 우·좌의대장으로 추대되었던 박춘무와 조현은 각각 청주성 남문과 서문의 공략을 지휘하였다. 다만, 박춘무는 6월 하순 이후 지속된 일련의 전투과정에서 주요 작전지역이었던 서문공략의 지휘권이 방어사 이옥으로부터 승장 영규로, 그리고 다시 호서좌의대장 조현으로 넘어감에 따라 남문의 공략을 담당하여 주로 牽制 및 應援(支援)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59) 『重峰集』부록 권2, 「行狀」, “方戰時 先生令李沃 設伏於北門外 沃不從 故使餘賊得脫 軍中莫不恨沃.”

60) 『重峰集』부록 권2, 「行狀」, “急向淸州 一面促李沃進軍.” 및 『重峰集』권8, 「淸州破賊後狀啓別紙」, “故其擊淸賊之日 簡書相戒 不一而足.”

이렇듯 박춘무는 청주성 수복이 있기까지 조현과 거의 대등한 위치와 역할을 분담하여 승리를 이끌어낸 또 한 명의 주요한 의병장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에 조현이 지휘한 의·승병이 8월 1일 전투를 수행한 지 하루만에 청주성을 수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 2. 鎭川 勝捷 이후의 活動

앞서 살펴 본 淸州城 收復戰鬪와 마찬가지로 박춘무의 鎭川勝捷에 대해서도 그 사실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진천으로 진군한 이후 박춘무의 의병진은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므로, 그의 문집 『花遷堂集』 이외에는 관련사실을 기술해놓은 자료도 현재로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도 진천지역에서 발행된 古邑志 및 현행 市郡誌 등을 조사해보면, 임진왜란 당시 활동한 의병장으로는 金孝騫, 李時發, 林秀荃·林秀堇·林賢 兄弟父子 등이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sup>61)</sup>

그런데 이러한 의병장들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임진왜란 초기 진천지역에서 활약한 중심인물은 오히려 박춘무로 보아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이시발은 박춘무 휘하에서 종사관으로 참가하였으므로, 그의 의병활동이란 사실상 박춘무 의병진의 활약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그리고 임수전·임현·임수명 부자형제는 박춘무의 의병진이 진천전투에서 왜군을 격퇴하고 수원방면으로 북상한 뒤, 의병진을 구성하고 북상하여 竹山 鳳城戰鬪에서 전사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박춘무의 의병진이야말로 임진왜란 초기 진천지역에서 가장 비중있게 활동한 의병부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춘무 의병진의 진천승첩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단독으로 거둔 성과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비교·검토할만한 자료는 아직까지는 없는 듯하다. 따라서 진천승첩에 대한 해명은 사실상 거의 전적으로 그 문집 『花遷堂集』에 의존하여 자료소개의 정도에 그쳐야 할 형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일차자료로서 격문 1건<sup>62)</sup>이 있어서 나름대로의 사실성은 확보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박춘무의 진천승첩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만한 한 두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花遷堂集』의 해당 기록을 다시 한 번 열람하는 것으로서 그 대체적인 논의를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앞서 인용한 「舉義時事」에서 해당부분의 기사를 다시 한 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1) 『朝鮮實輿勝覽』(1937, 李秉延 著), 「鎭川郡」, 功臣條·忠臣條 및 『鎭川郡誌』(1994, 진천군), 107 ~ 108 참조.

62) 『花遷堂集』권1, 「再檄文」.

군사를 나누어 진군하기를 조현은 錦山으로 나아갔으며, 공(\*박춘무)은 鎭川으로 향했다. 왜적을 포위하고 열흘이 지나도 지원병이 오지 않았다. 할 수 없이 포위를 풀려고 하였는데, 한 무리의 남녀들이 다투어 술과 음식을 가지고 바삐 달려와 위로하며 말하기를, 불쌍한 우리 城民들이 지금까지 도륙당할 위기를 넘긴 것은 모두 장군의 덕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포위를 풀다면 왜적들은 틀림없이 제멋대로 살육을 일삼을 것인데, 어찌 차마 우리를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이에 公 또한 울면서 그들을 달랬다. 그리고 그날 밤으로 포위망의 남쪽을 풀도록 하여, 왜적이 물러나 달아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公은 수천의 장사들로 하여금 말을 달려 추격하여 그 後陣을 공략하였다. 그리하여 대첩을 거두니 진천 일대가 이로써 안정될 수 있었다.<sup>63)</sup>

즉 호서 우·좌의병진의 1차 공략대상이었던 청주성 수복의 기쁨을 만끽하였을 박춘무 등의 승연합군은 다시금 본래의 작전구상대로 각기 군사를 진천과 금산방면으로 진군시켰다. 즉 박춘무의 의병진은 청주성 수복 직후 조현 의병진에 앞서 진천지역으로 진군하여,<sup>64)</sup> 왜군과 열흘정도 대치하다가 한쪽의 포위를 풀어 적의 퇴로를 열어준 다음 이를 통해 퇴각하는 적의 후미를 공격하여 패퇴시키는 방식, 즉 退路誘導 및 後方攻擊의 退路誘導 및 後方攻擊의 作戰<sup>65)</sup>으로 다시금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두어냈다. 이때 全面的 攻略의 방법을 택하지 못하고 퇴로유도의 작전을 구사한 까닭은 절대적인 數的 열세에 놓여 있던 상황에서 지원병을 요청하는 격문을 주변 군현에 발송하였으나, 순찰사 윤선각의 방해책동으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전투를 치러야 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花遷堂集』의 기록대로라면, 박춘무의 의병진은 청주성 수복에 이어 또 다시 진천승첩을 거두는 맹활약을 벌이고 있던 셈이다.

박춘무 의병진의 진천승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이 전투는 의병진이 절대적인 數的 열세에도 불구하고 거두어낸 승리, 특히 흔치 않은 連戰連勝이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박춘무의 의병진이 진천으로 진군하였을 때 왜군의 규모는 청주성전투 때의 2배에 달하였다. 반면에 의병진은 청주성전투를 치르는 동안 상당한 병력 손실이 있었을 것이므로, 사기가 크게 위축되어 진군하기를 주저하였다.<sup>66)</sup> 이에 따라 박춘무는 평소의 인품과 敵愾心으로 의병을 독려하고<sup>67)</sup>, 주변의

63) 『花遷堂集』 권3, 雜著, 「學義時事」.

64) 『花遷堂集』 권2, 「行狀」, “逆賊於淸州 與趙重峰先生 合戰敗之 又踞之於鎭川.” ; 『花遷堂集』 권3 「追錄 上言草」, “春茂先向鎭川.” ; 『花遷堂集』 권2, 「諡狀」, “遂分師敵愾 趙公則立殲于錦山 朴公則獻捷于鎭川.”

65) 『花遷堂集』 권3 雜著, 「學義時事」, “乃野虛其南 賊屏迹逃走 公以累千壯士 躍馬躡後 斬其後陣 遂獲大捷.”

66) 『花遷堂集』 권3, 「追錄 上言草」, “鎭川賊 倍於淸州 義士孤弱畏怯逡巡”

군현에 격문을 띄워 지원병을 요청하였으나 순찰사의 방해책동으로 지원병을 보내는 군현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듯 의병진은 왜군에 대해 절대적인 숫적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포위를 풀고 철수하려고 하였다. 특히 당시 지원병이 오지 않는 까닭이 순찰사의 지원금지 명령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의병진의 전투의욕도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때 의병진으로 하여금 전투의욕을 불러일으킨 것은 지역주민들의 애원과 격려 때문이었다. 규모상의 절대적 열세 때문에 공격할 엄두는 내지 못하고 대치하고만 있던 의병진은 성의 포위를 풀려고 하였다. 그러자 이때 어디선가 일단의 남녀들이 달려와 의병마저 철수하면 지역민은 곧 모두 왜적에게 도륙당할 것이라고 애원하면서, 술과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와서 의병진을 격려하였다. 이에 의병진은 다시 사기를 되찾아 그날 밤에 공격을 감행했다. 다만 이때 의병진이 절대적인 숫적 열세에 있었으므로 退路誘導 및 後方攻擊의 作戰을 통해 다시 한 번 전승을 거두었다.

그런데 청주성전투에 연이은 진천승첩의 의미로서 무엇보다도 특기할만한 사실은 이로써 박춘무는 호서우의대장으로 추대될 당시에 구상된 일련의 작전계획을 충실히 이행해간 유일한 의병장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본래의 작전구상에서 연합의병의 지도자로 설정되었던 박춘무·조현·고경명·김천일 중에서 고경명과 조현은 이미 전사하였고, 김천일은 7월말이면 강화도로 옮겨감으로써 사실상 본래의 계획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던 사람은 박춘무뿐이었다. 그렇다면 박춘무의 의병진이 절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진천전투에서도 승리하고 있던 배경으로서 그 개인적 역량의 탁월성도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진천승첩 이후 박춘무의 의병진은 다시 본래의 작전구상대로 계속 북상하여 수원방면으로 진군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후 水原을 거쳐 漢城 부근에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박춘무는 宣祖의 還都가 이루어짐에 따라 의병진을 해산하고 귀향하였는데,<sup>67)</sup> 丁酉再亂이 발발함에 따라 다시금 軍功을 떨치게 된다. 즉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都體察使였던 金應南은 그 대비책으로 이전에 활동하였던 의병장들을 기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가운데 박춘무는 李逢·辛景行 등과 함께 “亦長於用兵 不曾敗衄”,<sup>69)</sup> 즉, 用兵이 뛰어나 敗한 적이 없는 義兵

67) 『花遷堂集』권3, 「追錄 上言草」, “春茂奮然曰 京城失守 鑾輿播越 爲臣民者 但效死討賊 豈萌圖生之念乎.”

68) 이것은 당시 의병진의 일반적 현상이었다고 보여지는데, 國王의 還都가 이루어짐에 따라 北上勤王의 목표가 이미 달성된 셈이고, 또 국가질서의 회복에 따라 이제 의병도 마땅히 관군으로 해체·재정비될 이유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69) 『宣祖實錄』권70, 28년 12월 丙寅(28일), “應南曰…朴春茂 亦長於用兵 不曾敗衄.”

將의 한 사람으로 추천되고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박춘무 의병진의 명성이 어떠 하였던 것인가를 짐작하게 할만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박춘무는 折衝將軍兼僉知中樞府事에 서용되어 중앙 군인 五衛의 하나인 龍驤衛의 최고책임자로 활동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는 이미 관군이 재정비 된 이후이므로 당연히 정규군직을 띠고 활동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박춘무는 임진왜란 및 정유재란을 통하여 뚜렷한 軍功과 주목할만한 인물로 부각됨에 따라 그에 상응한 상훈적인 관직 등용도 여러 차례 이루어진 듯 하나, 그는 커다란 미련없이 귀향하여 남은 여생을 講學과 教育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IV. 朴東命 · 朴弘遠의 活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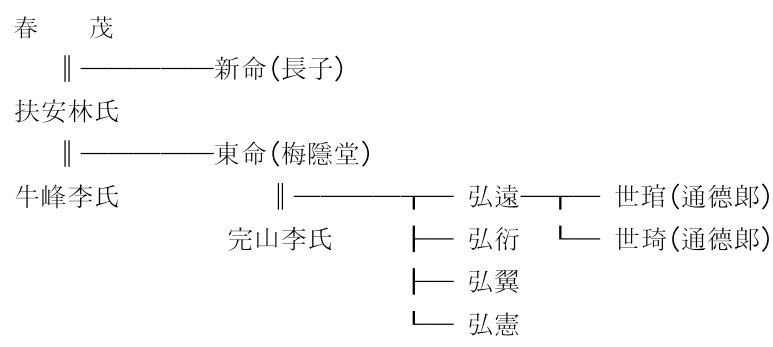
##### 1. 朴東命의 生涯와 活動

朴東命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박동명은 아버지인 朴春茂와 함께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청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그리고 1592년 7월 하순에 시작하여 8월 1일에 탈환한 淸州城 戰鬪에 참여하였다. 이때 아버지 박춘무가 이끈 청주의병이 趙憲과 靈圭가 이끄는 의병과 합류하였으며, 청주성 탈환에 많은 공을 세웠다. 또한 鎭川 戰鬪에도 작은 아버지 朴春蕃과 함께 죽기를 다해 싸워 대승을 거두는 등 큰 공을 세웠다. 그리고 丙子胡亂을 당하여서는 仁祖를 南漢山城으로 호종하다가 전사하였다. 이렇듯 양란에 걸쳐 武功을 세운 忠臣으로 조선 중기 청주 출신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본고에서는 박동명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그의 충의가 지극하였음을 살피고자 한다.

박동명은 순천 박씨 박춘무의 둘째 아들로 청주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牛峰李氏로 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원래 박춘무에게는 전처인 扶安 林氏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었다. 박춘무의 큰 아들인 朴新命으로 宣傳官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후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sup>70)</sup>

70) 『花遷堂集』 권2, 「墓表」와 家系圖 참조.

\* 順天 朴氏 愍襄公派 家系圖



박동명은 선조 8년(1575) 再娶인 우봉이씨의 소생으로 박춘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에 종군했다가 순절하였다. 무덤은 병자호란의 와중에서 순절하여 수습하지 못하고 지금의 충북 청원군 옥산면 국사리에 의관을 대신 묻어 장사를 지냈고,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에는 그의 충절을 기리는 정려가 세워졌다. 그는 슬하에 아들 넷을 두었는데 弘遠, 弘衍, 弘翼, 弘憲이다. 이 중 장자인 홍원은 李适의 난을 토벌하는 데 공을 세웠다. 호는 梅隱堂이고, 자는 時應, 시호는 忠景公이다.

그의 이력에 대하여는 『梅隱堂實記』에 비교적 자세히 실려 있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가 처음 세상에 발을 내디딘 것은 16세 때이다. 16세가 되던 해에 齋郎이 되었다. 재량에 대해서는 마치 그가 처음으로 관직에 진출한 것으로 오해하는 글도 있으나,<sup>71)</sup> 이는 잘못된 견해이다. 이것은 조선시대 국립지방학교인 鄕校에 박동명이 입학한 것을 말한다. 향교의 生徒가 되는 것은 16세 이상의 자에게만 허용이 되었기에<sup>72)</sup> 박동명은 16세가 되던 선조 23년(1590)에 향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73)</sup> 당시로서는 지방의 향교라도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재량이 된 것만으로 크나큰 영광의 하나였다. 그가 향교의 생도로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9세에 이미 부친에게 “인생에 있어서 世間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할 정도로 가내에서 교육을 받은 결과일 것이다. 특히 부친인 박춘무가 조헌, 이산보 등의 문인들과 함께 토정 이지함의 문하에서 동문수학하는 등 학문에 뛰어났던 점 역시 박동명이 일찍이 청주향교의 생도인 재량이 될 수 있게끔 하였던 것이다.

박동명이 18세가 되던 1592년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청주향교의 생도가 된지 불과 2년 만에 왜병의 침입을 받게 되자 그는 부친이 일으킨 의병에 참여하였다. 그는 항상 부친이 일으킨 의병의 선봉이 되었고 청주성 탈환과 진천 전투에서 수 많은 왜병을 참획하는 공을 세웠다. 이 때 박동명은 종 7품인 直長이 되어 從軍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74)</sup> 박동명이 실제로 직장의 관위를 가지고 의병에 합류했는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그 부친인 박춘무가 당시 종6품인 찰방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휘하의 선봉장으로서 거병할 때 부대편성과 운영을 위한 임시직 합일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그는 이후에 부친을 따라 선조가 몽진중인 용만, 즉 의주로 가서 임금을 알현하게 되었다. 이때 선조는 박춘무와 박동명에게 특명으로 벼슬을 주게 되었는데 직장은 아마 이 때 정식으로 제수를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전시에 국왕이 청주와 진천전투

71) 이원근, 1979. 「매은당 박동명 일가의 애국정신」 『제21회 충북예술제 학술강연회 발표요지』, 8 참조.

72) 『經國大典』 禮典 生徒.

73) 청주목에 있던 청주향교의 생도 수는 90명이 정원이었다.

74) 『梅隱堂實記』 권1, 「諡狀」.

에서의 공을 높이 사 특별히 제수한 벼슬로 박춘무 부자의 군공에 대한 배려였던 것이다. 그의 諡狀에는 선조가 內乘을 제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내승이란 사복시의 관리를 총칭하는 용어로 병마를 관리하는 직장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병조 소관의 사복시 무관직에 박동명이 정식으로 제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임진왜란 중에 박동명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25세 때인 1599년에는 武科에 응시해 합격하였고 이후 宣傳官으로 국왕의 侍衛를 맡아 從仕하였다. 그러나 33세가 되던 선조 40년(1607)에는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파직을 당하였다. 박동명이 파직을 당한 이유는 “사람됨이 悖妄하여 동료들을 모욕하여 近侍의 직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sup>75)</sup> 사간원의 탄핵 사유만으로 보서는 선전관으로 있으면서 주변의 관리들과 잘 지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료들과의 갈등에서 오는 불화로 인하여 파직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사간원에서 탄핵한 인물 중에는 임진왜란시 경주성 전투에서 왜군을 물리친 전 兵使 朴毅長도 있었다. 그 역시 “성품이 패악하고 행실이 무상하다”고 하여 박동명과 비슷한 이유로 탄핵을 받고 있다. 이로 보면 박동명과 박의장은 임진왜란 이후 전쟁에 참여했던 장수들에 대해 모함하고 비난하는 세력들에 의해 피해를 보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고, 또한 봉당의 대립과정에서의 피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더 이상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이 없어 파직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박동명은 중6품관인 강원도 蔚珍縣監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다시 승진하여 43세 되던 광해군 8년(1617)에 이르러서는 중5품관인 濟州判官<sup>76)</sup>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사헌부에서 다시 탄핵함으로써 제주판관에 부임도 하지 못하고 교체되는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박동명의 諡狀에는 그가 제주판관을 역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제주판관으로 임용되자마자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부임을 못하였다는 사실이 『光海君日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77)</sup> 이때가 1617년 9월 17일이었다. 제주판관은 역대로 252명이나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 부임하지 않은 인물들은 오지인 제주도의 부임을 꺼리거나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부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1607년 사간원의 탄핵을 받은 이후 두 번째로 탄핵을 받아 제주판관으로 부임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박동명에게 득이 되었다. 박동명이 제주판관으로 제수 받을 당시 제주목사는 후에 난을 일으키는 李适이었다. 이괄은 광해군 8년(1616) 5월부터 11년(1619) 2월까지

75) 『宣祖實錄』 선조 40년 5월 己巳.

76) 순천김씨 민양공파 족보에는 제주목사로 부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제주판관으로 임명되었다가 탄핵을 받아 부임을 못한 것 같다.

77) 『光海君日記』 光海君 9년 9월 己卯.

제주목사를 역임했다. 만일 박동명이 제주관관으로 부임했다면 이괄의 후임자가 되는 처지가 되었을 것이고, 이후 이것은 박동명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제주관관으로 부임하지 못한 것이 박동명에게는 그리 불운한 것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괄은 이후 태안군수를 역임하기도 했는데 그 후임자 중의 한 사람이 박동명이었던 것은 이괄과 박동명의 기구한 인연이기도 하다.

50세가 되던 仁祖 2년(1624) 1월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 박동명은 병석에 누워 있었다. 이 때 받아들인 박홍원에게 거병하여 반란군 토벌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박홍원은 그에 부응해 반란군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이괄의 난 이후 박동명은 종4품관인 泰安郡守를 역임했다. 박동명이 지방의 수령으로 올진 현감과 태안군수를 거쳤는데 모두 청백리라 일컬었을 정도로 청렴하였고, 또한 선정을 베풀었다. 그리하여 태안군수의 임기를 마칠 적에는 태안군민들이 송덕비를 세울 정도였다.

박동명은 관직에서 물러나 있을 때는 때로 근처의 泉谷 宋象賢의 묘소에 찾아가 경탄하기를 마지않았다. 송상현은 임진왜란 발발 당시 동래부사로서 동래성에서 왜군을 맞아 항전하다가 순절한 인물로 묘소가 박동명의 집에서 매우 가까운 지금의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에 묘소가 있다. 박동명은 가끔 이 곳을 찾아 송상현을 추모했고, 그의 정려를 지날 때는 꼭 말에서 내려 경의를 표하였다. 그러므로 마을 사람들이 충의와 우리름이 지극함을 칭찬하였다.<sup>78)</sup> 57세 되던 인조 9년(1631) 정월에 박동명은 정3품 당상관인 절충장군으로서 충청도 수군우후로 있다가, 이괄의 난 평정에 아들 박홍원이 진무공신으로 책봉된 까닭에 가선대부 공조참판 겸 동지 의금부사로 추증을 받았다.

62세가 되던 해인 인조 14년(1636)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박동명은 다시 의병을 일으켜서 서울로 향했다. 청군의 침입으로 다급해진 조정에서는 8도의 감사와 병사에게 근왕병을 모집해 구원할 것을 명하였다. 이때 박동명도 국왕의 명을 받들어 군사를 모아 남한산성으로 출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호란으로 국왕이 위태롭게 되었음에도 의병을 모으는데 인심이 흥흥하고 겁내어 간혹 불응하는 자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그는 檄文을 띄워 前出身 李春祿과 趙成楠을 불러 상의하여 청주 인근의 5천여명을 모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閑良 金泰錫이 야밤에 도주하자 그를 잡아 斬하고 그 머리를 遠近사람들에게 보게 하였다. 박동명은 의병 5천을 거느리고 이춘록을 先鋒으로 삼고 조성남을 후군으로 삼아 1636년 12월 24일에 청주를 출발하여, 12월 27일 아침에 廣州 茂溪에 주둔한 忠淸監司 鄭世規의 군진에 합류하였다.

78) 『梅隱堂實記』 권1, 「行狀」.

그런데 이때는 이미 청군의 선봉이 12월 16일에 남한산성에 다다른 후였다. 인조는 12월 14일에 남한산성으로 몽진을 한 후 강화도로 다시 옮기려 하였으나, 청군이 성을 포위하자 남한산성에서 고립된 채 청군에 항전을 하고 있던 때였다. 충청감사 정세규는 12월 18일에 근왕의 명을 받았고 남한산성이 이미 포위된 사실을 알았다. 그는 바로 각 읍 수령들로 하여금 근왕병을 모집하여 공주에 집결하도록 하였다. 7천 명의 병사를 확보한 정세규는 충청병사 李義培로 선봉을 삼아 12월 25일에 공주를 출발하여 남한산성으로 진군하도록 하였다. 박동명도 이때의 충청감영에서 초모한 근왕병의 일원으로 출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는 청주목사의 휘하에 편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도착한 것은 충청감영의 근왕병 주력이 1636년 정월 2일에 남한산성 근처에 도착한 것보다 빠른 것으로 행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는 그가 충청감사 정세규의 본진에 합류했을 때 정세규는 청군에게 대패한 뒤였고 전세가 불리해져 있었다는 사실과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기록이다. 충청감사 정세규가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박동명은 광주 무계에서 청군과의 전투 중에 전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기록은 박동명이 청주에서 출전하여 합류한 부대가 충청감사 정세규 휘하의 근왕병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박동명이 합류한 부대는 당시의 근왕병의 초모 사실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당시 근왕병중 박동명이 출전한 12월 27일 경에 남한산성 근처에 와 있던 사람은 강원감사 趙延虎였다. 강원감사 조정호는 가장 먼저 7천 명의 근왕병을 거느리고 남한산성으로 왔다. 그는 원주영장 權井吉로 하여금 우선 1천 명의 선봉대를 이끌고 남한산성 가까이에 있는 黔丹山<sup>79)</sup>에 진영을 차렸다. 그러나 청군의 공격을 받아 겨우 권정길을 비롯한 수십 명만이 살아남고 전군이 다 전사하였다.<sup>80)</sup>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박동명이 합류한 군진은 충청감사 정세규가 거느린 근왕병이 아니라 강원감사 조정호가 거느린 근왕병의 선봉대인 권정길의 군진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권정길의 선봉대가 검단산에서 이미 전멸을 당한 이후인지라 박동명이 분격하여 홀로 역전하였으나 힘이 다하여 패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휘하의 김득성이 일단 물러나 후일을 도모하자고 말렸으나, 박동명은 오히려 “이 곳은 사나이가 죽을 곳이다”라고 하며 물러서지 않고 싸우다 드디어 순절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전쟁의 와중에 그의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하였고 그가 타던 말만 찾을 수 있었다.

인조도 남한산성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나와 청나라에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었다. 전쟁이 끝났음에도 박동명의 시신을 찾지 못하자 의관만을 장사지내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79) 지금의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산으로 남한산성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80) 『仁祖實錄』 仁祖 14년 12월.

의관을 장사 지낸 곳에는 박동명과 그가 타던 말에 관한 전설만이 전해져 그의 충절을 후세인들에게 되새기게 해준다.<sup>81)</sup>

박동명은 임진왜란과 이괄의난, 병자호란의 국란을 맞이하여 매번 몸소 충의를 실천하므로서, ‘一人三役’을 실천한 청주지역의 대표적인 충신으로 후세의 귀감이 되고 있다. 박동명의 순절 후인 孝宗 3년(1652)에는 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선무원종공신으로 祿2等に 봉해지고 자헌대부 공조판서 겸 의금부사로 추증되었다. 肅宗 34년(1708)에는 旌閭가 세워졌고, 이때 세워진 정려는 지금도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에 남아 있다. 그리고 高宗 35년(1899)에는 忠景이란 시호를 하사받았다.

## 2. 朴弘遠의 生涯와 活動

박홍원은 박동명의 맏아들로 선조 38년(1605)에 3월 24일 청주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完山 李氏로 縣監 李義成의 딸이다.<sup>82)</sup> 그의 이력에 대해서는 1734년 族孫 朴敏采가 지은 行狀<sup>83)</sup>과 1882년 宋秉璿이 지은 墓表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沈光世가 지은 『休翁集』에 그가 박동명의 아들이라는 기록이 있다.<sup>84)</sup>

그는 어려서부터 4서 3경을 읽어 통달하였다. 1624년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 18세였는데, 부친인 박동명이 당시 병석에 있어서 직접 출전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부친이 “네 나이가 지금 18세이니 곧 아버지가 왜적을 치던 때이다. 내가 병으로 나갈 수 없으니 네가 내 대신 나가거라” 하니, 홍원이 울며 “侍湯할 사람이 없어 자식의 도리로 어찌 차마 길을 떠날 수 있으리요, 하지만 小魁가 날뛰니 君父의 곁으로 달려가 적을 토벌함이 신하된 자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뜻이 이러하시니 감히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고는 출진준비를 서둘렀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여러 군에서 모병을 하여 수천 명의 의병을 모아 밤낮으로 말을 달려 도원수 張晩이 거느린 토벌군에 합류하였다. 1624년 2월 이괄의 반란군이 서울을 점령하자 인조를 비롯한 대신들이 공주로 피난하였다. 이때 박홍원은 장만이 거느린 토벌군에 참가하여 서울에 주둔한 이괄의 반란군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길마재(鞍峴) 전투에서 반란군을 대파하였다. 길마재 전투의 승리후 도원수인 장만이 박홍원의 손을 잡고 국왕을 알현하여 개선을 上奏하자

81) 충청북도, 1982, 『전설지』, 172~173 참조.

82) 『梅隱堂實記』, 권1, 「謚狀」.

83) 『梅隱堂實記』, 권1, 「宣務郎行狀」.

『梅隱堂實記』, 권1, 「宣務郎墓表」.

84) 『休翁集』 권1 詩 七言絶句, 한국문집총간 제84집, 민족문화추진회.

했다. 그러나 그는 “국사가 이미 끝나서 元惡의 머리를 베어 위협이 없어졌고, 부친이 병상에 있어 生死를 알 수 없다”고 고향으로 바로 돌아왔다. 박홍원이 돌아오자 부친은 베개를 밀치고 일어나 그의 손을 잡고 “네 한 몸이 忠孝이니, 너는 참으로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운 아들이다”라고 자탄해 마지않고, 그로 인해 병도 치유되었다.

그러나 박홍원이 국왕을 알현하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온 까닭에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데 세운 공이 드러나지 않아 포상으로부터 제외되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애석하게 여겼다. 그러나 박홍원은 1631년 정월<sup>85)</sup>에 振武原從功臣 1等으로 宣務郎에 제수되었다.<sup>86)</sup> 박홍원의 공신녹훈 덕으로 부친인 박동명도 가선대부 공조참판의 증직이 내려졌다.

30세 때인 1636년에는 병자호란을 당하여 부친 매은당 박동명이 병사를 모아 출전하는데 어머니 완산이씨의 병수발 때문에 부친을 따라 가지 못하였다. 그런데 부친이 광주 무계 전투에서 전사하고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게 되자 향리에서 죄인을 자처하며 두문불출하게 되었다. 현종 10년(1669) 2월 28일에 6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다. 묘소는 청주 남쪽 팔봉산 아래에 부인 晉州 鄭氏와 함께 묻혔다.<sup>87)</sup> 자손은 아들 둘을 두었는데 첫째가 世瓘이고 둘째가 世琦로 모두 通德郎에 제수되었다.

박홍원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괄의 난 진압에 참가한 것 말고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오로지 부친인 박동명이 병자호란을 맞이해 근왕병을 이끌고 남한산성의 인조를 호종하려 하였다가 광주 무계에서 전사한 뒤,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다가 스스로 죄인임을 자처하면서 향리에서 두문불출하며 여생을 마쳤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병자호란 때 부친을 따라 출전하지 않은 것이 오직 모친의 병수발을 들기 위해서였다는 것은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다. 조부와 부친이 왜란과 호란에 직접 출전한 것에 비하면 그가 호란을 당하여 부친을 따라 출전하지 못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나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으며 이 부분은 후일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 V. 맺 음 말

이상으로 順天 朴氏家の 三代에 걸친 倡義에 대해 朴春茂를 中心으로 그 子인 朴東命과 孫

85) 朴東明의 告身教旨에 의함.

86) 『梅隱堂實記』, 권1, 「遺事」.

87) 현재 충북 청원군 남이면 구암리 천방동이다.

子인 弘遠에 이르기까지 살펴보았다. 박춘무의 의병활동 내용을 그 특징과 연관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네 가지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박춘무의 의병진은 창의기병 당시부터 하나의 원대한 작전구상 위에서 모병되고 활동하였다. 즉 임진왜란 초기 호서·호남의병의 首倡者인 조헌·김천일·고경명 등과 연계하여 이른바 犄角之勢로 표현된 하나의 상호연대적 공동작전을 수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특히 박춘무와 조헌은 각각 호서의병의 우·좌대장으로 추대되어 연합작전과정에서 실질적인 활동의 대부분을 담당하도록 구상되었다. 구체적으로 조헌은 고경명과 연계하여 錦山을 통해 호남으로 진출하려는 왜군을 방어하고, 박춘무는 한양과 금산의 중간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던 淸州와 鎭川地域의 왜군을 격퇴하고 水原에서 김천일과 합류하여 한성 수복전에 대비한다는 방안이었다.

兩湖義兵陣이 이러한 작전구상에 따라 일단의 부대 편성을 이룬 것은 1592년 7월 4일경이었다. 박춘무는 조헌과 같은 날 출정식을 치르고 추가모병 및 부대훈련을 실시한 다음, 첫 번째 공략대상인 청주성으로 진군하였다. 그리하여 1592년 8월 1일 조헌과 영규는 청주성의 서문을 맡고, 박춘무는 정문인 남문을 공략하여 이튿날 청주성을 수복하는 전과를 올렸다. 다만, 박춘무의 남문 공략은 6월 하순 이후 지속된 일련의 전투과정에서 주요 작전지역이었던 서문공략의 지휘권이 방어사 이옥으로부터 승장 영규로, 그리고 다시 호서좌의대장 조헌으로 넘어감에 따라 주로 牽制 및 應援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추론된다. 그리고 이어서 본래의 구상대로 조헌은 금산으로 진출하였다가 8월 18일 전사하였으나, 박춘무는 8월말에 다시 진천전투에서도 승전보를 올렸다. 이렇듯 박춘무는 호서의 작전지역에서 일단의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계속 북상하여 수원을 거쳐 한양부근에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박춘무의 의병진은 당시 대부분의 의병진과는 달리 일찍이 鄉邑을 떠나 충청·경기지역에서 北上勤王의 討賊活動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박춘무의 의병진이 기본적으로는 세거지였던 청주 서부지역에서 家率을 중심으로 거병하였지만, 양호의병의 공동작전 구상에 따라 활동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그의 의병진은 청주성 수복 이후 진천·수원 등을 거쳐 한양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鄉里自保나 復讐討賊에 그쳤던 鄉邑中心의 群小 義兵將과는 성격을 달리하였다.

특히 그의 의병활동에서 특기할만한 사실은 단기간에 구성되고 外地에서 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連戰連勝하여 패배를 모르는 의병장이었다는 사실이다. 청주성수복에 이어 진천전투에서도 절대적인 숫적 열세를 극복하고 연이어 승첩을 거두었으며, 이후의 전투에서도 勝戰을

지속하였던 듯 ‘용병에 뛰어나 패한 적이 없는 의병장’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일찍이 조현이 그 인물됨을 ‘恬靜自守’라든가 ‘深沈有智慮’라고 표현한 반면에, 박춘무는 고경명과 조현의 전사에 ‘輕發而乃死’라고 애석해하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전투에 앞서 對敵情報라든가 地形地物의 숙지 등 충분한 사전 정보에 바탕하여 작전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일찍이 성리학 외에도 天文·易學 등의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던 이지함의 학풍이 일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상정해 볼 만하다.

셋째, 박춘무의 의병진이 창의기병할 수 있었던 사회경제적 기반과 관련해서는 일찍이 조선 초부터 ‘淸州~懷德’ 일대에 세거하였던 선대의 배경, 특히 부친 朴箕精의 학문적·지역적 명망이 작용하였지만, 무엇보다도 토정 이지함의 문하라는 하나의 학연적 유대가 핵심적인 매개고리를 제공하였다. 즉 박춘무는 수학을 위해 거처를 옮기고 그 사실을 기념하여 自號할 정도로 이지함의 학문을 추종하여 그 문하의 대표적 학자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다름아니라 호서지역으로 내려와 소모활동을 전개한 송제민이나 함께 좌의대장으로 추대된 조현이 모두 동문수학한 사이였다. 특히 이들은 이미 청년시절부터 艱難을 함께 共濟하기로 한 ‘歲寒의 故友’였다. 송제민의 교섭과 주선으로 호서의병이 구성될 때, 박춘무와 조현이 두 수반으로 추대되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박춘무의 의병진이 단기간에 대규모의 병력을 갖추고 향읍을 떠나 주로 外地에서 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전연승의 軍功을 세울 수 있던 것은 무엇보다도 당시 일반 백성의 민족적 각성에 힘입은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즉, 왜군의 점거가 장기화되면서 그만큼 피점령지역 주민들의 인적·물적 피해와 고통도 심화되면서, 일반 민중들은 支配階層의 收奪에 따른 反感과 身分的 對決意識을 뛰어넘어 同胞의 連帶意識을 발휘하여 民族的 抵抗의 隊列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임진왜란 발발 이후 3개월이 지난 7월에 들어서야 의병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까닭이었다. 여기에 박춘무의 의병진은 동생 박춘번, 아들 박동명 등 주로 家屬에 의해 지휘됨으로써 휘하의 군사들에게 指導者的 模範에 바탕한 강한 順應的 結束力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야말로 향리를 떠나 外地에서 전개된 군사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전연승의 성과를 거두어낸 두 견인차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렇듯 주목할만한 위상과 뚜렷한 전공에도 불구하고 박춘무의 의병활동 사실은 충분히 기록되거나, 특히 지역사회에서 거의 알려지지 못했던 까닭에 대해 언급해보지 않을 수 없다. 즉 비록 단편적인 기록들이기는 하지만, 조현과 더불어 호서의병의 수반으로 추대되었다는 사실에서부터 정유재란을 맞아서는 ‘용병에 뛰어나 패한 적이 없는 의병장’으로 인식되어

중양군의 실질적 최고책임자의 한 사람으로 활약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사적은 후대에 충분히 전승되지 못하고 주변의 인물들에 의해 복원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일까 하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그의 의병활동은 대부분의 의병진과는 달리, 처음부터 하나의 원대한 작전구상 아래 鄉畵를 떠나 전개되었던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그는 北上勤王의 討賊活動을 구상하고 外地로 전전함에 따라 소규모의 향토의병장보다도 지역사회에서 기억될 만한 여지를 남기지 못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으로는 그 휘하에서 종사관으로 활약한 이시발이 일찍이 이듬해 4월이면 다시 조정에 복구하여 활동하였던 것도 그 사적을 보존하는 데는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그의 자손, 즉 둘째 아들 朴東命, 손자 朴弘遠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임진왜란에서부터 이괄의 난, 병자호란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창의기병함으로써 ‘三世倡義之家’의 명성을 얻었지만, 가계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박춘무의 의병활동 사적은 중앙 또는 전국적으로 활동한 인물들의 저술을 통해서만 기억되었던 반면, 지역사회에서는 ‘잃어버린 이방인’으로 남아있던 것으로 생각해 볼 만하다.

끝으로 아쉬운 것은 梅隱堂 朴東命과 宣務郎 朴弘遠에 대한 資料가 너무 빈약해 三代 倡義에 대한 實體를 광범위하게 밝히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러나 朝鮮時代에 國難을 당해 三代에 걸친 忠臣家가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만족함을 얻고자 한다.